

## 칸트의 라이프니츠 비판 — ‘구별 불가능한 것의 동일성 원리’를 중심으로 —

박 배 형

(서울대학교 미학과)

### 1. 들어가는 말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의 〈반성개념들의 모호성에 관하여〉라는 한 장(章)에서 라이프니츠의 철학 일반을 비판적으로 논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상들 중의 하나가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원리들 중의 하나인 ‘구별 불가능한 것의 동일성 원리’(principium identitatis indiscernibilium; Grundsatz des Nichtzuunterscheidenden; Principle of Identity of Indiscernibles, 이하 PI로 축약)이다. 모순을 혹은 동일을 및 충분근거율과 더불어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PI는 형이상학적 또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는 원리, 즉 존재하는 것 일반에 해당되는 원리로서 단지 논리적인 의미를 지니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sup>1)</sup> 이

주 제 어: 구별불가능한 것의 동일성 원리, 상이성, 순수오성의 대상, 경험대상, 단자론, 완전개념  
Grundsatz des Nichtzhunterscheidenden, Verschiedeneheit, Gegenstände des reinen Verstand, Erfahrungsgegenstände, Monadenlehre, vollkommener Begriff

원리를 라이프니츠가 뜻한 바에 따라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물들은 상이하다.<sup>2)</sup> 라이프니츠의 주장에 따르면 실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 1) 라이프니츠는 이 원리를 자신의 “새로운 중요한 공리들 중의 하나”로 칭하기도 하며, 그것의 의의를 일컬어 이 원리가 그의 다른 철학적 원리인 총족이유율과 함께 “형이상학의 상태를 변모”시킬 것이라고도 말한다. G. W. Leibniz,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ottfried Wilhelm Leibniz* (이하 GP로 축약), 7 Bände, hrsg. von C. J. Gerhardt, Berlin 1875-1890 (Nachdruck, Hildesheim, 1960ff.), Bd., IV, 514쪽; ‘Leibniz’ Viertes Schreiben an Clarke’, *Gottfried Wilhelm Leibniz Hauptschriften zur Grundlegung der Philosophie* (이하 HS로 축약), übers. von A. Buchenau u. hrg. von E. Cassirer, Bd. I, Hamburg, 1966, 146쪽.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있어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원리는 물론 서양 철학사 내에서 또 연구가들에 의하여 비중있게 다루어져 온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필자가 아는 한, 이 원리(PI)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칸트 철학과 라이프니츠 철학과의 관계 또는 칸트의 라이프니츠 비판을 다룬 국내 논문은 적지 않지만 PI를 중심으로 다룬 국내의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들은 라이프니츠의 PI를 칸트 철학과의 연관 속에서 다룬 흔치 않은 논문들이다. 박 진, 「칸트의 라이프니츠 비판 — 칸트의 반성원리들에 관하여(II) —」, 『철학』 65집, 2000, 115-138; 백 승환,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한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리 비판」, 『철학논구』33집, 2005, 131-147.
- 2)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여러 글들에서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라이프니츠가 이를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문장들은 이 원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보기들이다: “구별이 불가능한 두 개의 개별적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Es gibt keine zwei ununterscheidbaren Einzeldinge”), ‘Leibniz’ Viertes Schreiben an Clarke’, HS, 145 쪽;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두 개의 사물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에게서는 내적 차이가, 달리 말하자면 내적 규정에 근거하는 차이가 발견될 수 있다” G. W. Leibniz, *Monadologie*, § 9 in Bd. I: *Philosophische Schriften* (이하 PS로 축약), hrsg. u. übers. von H. H. Holz, Darmstadt, 1985, 443 쪽.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 원리는 단지 모든 사물들이 상이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규정”에 따라 상이함을 말하고 있다. 라이프니츠에게서

자기동일적이며 이들은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전적으로 동일한 어떤 두 개의 사물도 있을 수 없다. 만약 전적으로 같아 보이는 두 사물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여 세밀한 차이를 간과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차이가 있으며 그런 까닭에 궁극적으로는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주장이다. 그렇기에 라이프니츠는 이 원리의 절대적인 타당성을 주장하였고, 흔히 자명한 원리를 뜻하는 말인 “공리(Axiom)”라는 명칭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러나 라이프니츠에게서 하나의 명명백백한 참된 명제를 의미했던 PI를 칸트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명제, 그런 의미에서 그릇된 명제라고 비판한다.<sup>4)</sup> 라이프니츠와 달리 칸트에 따르면 구별이 불가능한 두 개의 사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PI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비판적 해석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의 PI는 일종의 논리적 규칙으로서만 타당하다.<sup>5)</sup>

---

“내적 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사물들의 상이성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2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 3) G. W. Leibniz, GP, Bd. II, 249쪽.
- 4) 예컨대 칸트는 이 원리가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제로 이해되는 한에서는 그릇된 명제이며 “이성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이하 KdV로 축약), hrsg. von R. Schmidt, Bd. 37a der Philos. Bibliothek, Hamburg, 1956, A 269f/ B 325f, A 272/ B 328 참조; I. Kant, *Über die von der Königl.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für das Jahr 1791 ausgesetzte Preisfrage: Welches sind die wirklichen Fortschritte, die die Metaphysik seit Leibnitzens und Wolffs Zeiten in Deutschland gemacht hat?* (이하 *Fortschritte der Metaphysik*로 축약) in Bd. III: *Werke in sechs Bänden* (이하 WS로 축약), hrsg. von W. Weischedel, Darmstadt, 1958 (Nachdruck, 1983), 614쪽.
- 5) 칸트는 이 라이프니츠의 원리가 단지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비교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적인 규칙(“analytische Regel”)이라고 일컫는다. KdV, A 272/ B 328 참조. 본 논문은 객관적인, 대상에 적용되는 원리로서의 PI에 대한 칸트의 비판에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단순한 논리적 규칙으로서의 PI에 대한 칸트의 평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PI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검토하고 이 비판이 어느 정도로 정당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칸트가 행한 비판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라이프니츠에게서 PI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칸트의 해석에 따르는 PI가 라이프니츠가 생각한 PI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한에서 우리는 단지 칸트의 눈으로 본 라이프니츠의 PI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 우리는 2장에서 라이프니츠의 PI가 무엇을 뜻하는 지를 간략히 그러나 가능한 한 정확히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 우리는 PI에 대한 칸트의 해석과 비판을 상술하면서 그 비판의 근거를 밝히고 그 정당성을 가늠해 볼 것이며, 4장에서는 이 비판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 2. 라이프니츠에게서의 PI의 의미

라이프니츠의 PI가 말하는 모든 사물의 상이성과 구별가능성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우리가 눈 앞에 두 개의 사물을 보고 있다고 할 때, 예컨대 두 개의 나뭇잎을 본다고 할 때, 이 두 나뭇잎은 서로 다른 나뭇잎이다. 어떤 차이가 이 나뭇잎들에서 발견되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기 전에, 두 개라는 사실이 이미 이 사물의 수적인 상이성을 지시한다. 그런데 PI가 말하는 사물들의 상이성은 사물들이 단지 수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더욱이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어떤 개별적인 사물도 [...] 전적으로 같을 수는 없으며 항상 수적으로 다른 것 이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sup>6)</sup>

---

가에 대해서는 상론하지 않을 것이다.

6) *Nouveaux Essais*, PS, Bd. III/1, XXIX쪽. 라이프니츠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라이프니츠는 물론 사물들의 수적인 상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만 다를 뿐 전적으로 같은 두 개의 사물이란 있을 수 없음을 PI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창문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물방울이나 한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달걀은 그것들이 아무리 유사해 보일지라도 단지 수적으로 다른 것 이상으로 상이하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PI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물들의 상이성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우선 그의 『단자론』 *Monadologie*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단자론』의 § 9에서 그는 사물들이 내적인 차이에 의해, 즉 “내적 규정(denomination intrinseque)”에 근거하는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다.<sup>7)</sup> 즉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사물들은 모두 내적 규정에 의거하여 상이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PI가 담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내적 규정”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어떤 사물을 그 사물에게 하는 본질적인 성질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내적 규정들이 어떤 사물 자체에 귀속되는 성질들로 이해될 수 있다면, 외적 규정들이란 이와 대립되는 규정들로서 어떤 사물 자체를 이루는 본질적인 성질이라 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외적 규정들은 사물들 사이의 외적인 관계를 표현한다. 예를 들면 사물 A가 사물 B보다 크다거나 A가 B의 왼쪽에 놓여 있다거나 하는 외적 관계의 성질들이 바로 외적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sup>8)</sup> 이렇듯 라이프니츠가 PI에 따라

---

한다: “통속적 철학자들은 단지 수적으로만 차이가 나는 사물들이 있다고, 또는 단지 사물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구별된다고 여김으로써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Leibniz’ Fünftes Schreiben an Clarke’, Pt. 26, HS, Bd. I, 174쪽.

7) G. W. Leibniz, *Monadologie*, § 9, PS, Bd. I, 443쪽. *Nouveaux Essais*에서도 라이프니츠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내적 규정들(denominations intrinsèques)”에 의거하여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다. *Nouveaux Essais* II, PS, Bd. III/1, 100-1쪽.

8) 내적 규정들과 외적 규정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B. Mates, *The Philosophy of Leibniz*, New York/ Oxford, 1986. 218-9쪽을 참조할 것. 이 두 종류의 규정들은 의미상 서로 대립적이지만, 양자의 관계는 라이프니츠에게 있

주장하는 모든 사물들의 상이성이란 내적 규정들에 의거하는 상이성을 뜻하기에, 그는 단지 시간이나 공간적인 차이만 가지고는 사물들의 상이성과 동일성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 외에도 필연적으로 또한 내적인 구별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물론 동일한 종에 속하는 많은 사물들이 있지만 그 중 어떤 두 사물도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이 [...] 사물들을 구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은 내적으로 구별가능하다. 이렇듯 동일성과 상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서는 충분히 해명될 수가 없다. 물론 사물들의 상이성은 시간과 공간의 상이성을 동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sup>9)</sup>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모든 사물들의 상이성 및 구별 가능성은 그의 모나드론과 완전개념의 이론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은 모나드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모나드들은 우주를 이루는 참된 요소로서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단순한 실체이다. 우리 인간이 지각하는 물질적인 현상계의 배후에는 모나드들의 세계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인식 능력이 제약되어 있기에 이를 직접 지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한한 인식능력을 지닌 신에게는 모나드들의 세계로 지각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겐 물리적인 사물들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이

---

어 단지 대립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내적 규정들은 외적 규정들의 근거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전자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후자, 즉 전적으로 외적인 규정들은 있을 수 없다. “내적인 규정을 그 근거로서(pro fundamento) 갖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순전히 외적인 규정들이란 없다.” G. W. Leibniz,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ottfried Wilhelm Leibniz* (이하 GP로 축약), 7 Bände, hrsg. von C. J. Gerhardt, Berlin 1875-1890 (Nachdruck, Hildesheim, 1960ff.), Bd. II, 240쪽.

9) *Nouveaux Essais* II, PS, Bd. III/1, 390-93쪽.

다.<sup>10)</sup>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 모나드들은 수적으로 무한하며 서로가 상이하도록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들을 구성하는 내적 규정들에 의해 구별된다.<sup>11)</sup>

한 모나드를 이루는 내적 규정들은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 모나드의 완전 개념 속에 부분개념들 혹은 술어들로서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이저라는 인물의 모나드<sup>12)</sup>에 상응하는 완전개념 속에는 이 인물을 이루는 모든 것, 이

10)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참으로 실재하는 것은 모나드들뿐이며 물체들의 세계는 단지 모나드들의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가 물체세계와 모나드의 세계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양자의 존재론적 지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잘 근거지워진 현상들”이며 이 근거를 이루는 것이 바로 후자이다. 현상들이 모나드들로부터 결과하며 또 모나드들로 환원된다는 생각을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태를 보다 면밀하게 숙고해 보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모나드들 외에는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 “그러나 제가 물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 물체들이 실체가 아니며 단순한 실체들로부터 결과하는 현상임을 증명함으로써 — 단지 물체를 이것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원시킬 뿐입니다.” HS, Bd. II, 347, 349쪽. 라이프니츠의 실체 개념 및 그에게서 현상계와 예지계(모나드들의 세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윤 선구, 「현상세계의 형이상학적 근거 — 라이프니츠의 현상계 이론 —」, 『철학』 57집, 1998, 129-165.

11)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나드들은 두 가지의 속성을 통해 특징지어지는데 그 하나는 지각(Perzeption)이며, 다른 하나는 욕구(Strebung)이다. 지각이란 곧 표상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 능력의 산물들인 지각들의 내용이 다른 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욕구란 지각들의 변화 내지는 이행을 야기시키는 내적 활동성을 뜻한다. 이러한 모나드의 속성들에 대한 라이프니츠 자신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onadologie*, §§ 14-18, PS, Bd. I, 444-47쪽; *Principes de la Nature et de la Grace*, §§ 2-4, PS, Bd. I, 414-21쪽.

12) 여기서 우리는 시이저라는 역사적인, 육체를 지닌 인물을 이루는 궁극적인 요소로서의 모나드가 어떻게 하나(단수)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시이저라는 인물의 모나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더욱이 라이프니츠 자신이 모든 물체를 모나드들로부터 “결과하는 집합체”라

인물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부분개념들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것, 부르투스에게 살해당한다는 것과 같은 사태들이 이미 이 완전개념 속에 술어들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모나드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완전개념들이 존재하며, 이를 소유한다는 것은 모나드 자체를 완전히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물론 인간이 소유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라이프니츠가 말하고 있듯이 신의 오성에 속하는 개념들이다.<sup>13)</sup>

모든 사물들이 결국 모나드들로 환원되고 모나드들이 서로 상이하며 내적인 규정들에 따라 구분된다면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상이성 또한 이러한 환원을 통해 설명될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과 완전개념의 이론이 전제되는 한에서, 모든 개개의 사물들은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서로간에 상이하고 자기자신과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PI가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답변은 모든 생명체가 궁극적으로는 모나드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에는 “중심모나드” 또는 “지배적 모나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배적 모나드가 말하자면 한 생명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이 생명체를 바로 이 생명체에게 한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설명에 따라 시이저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시이저의 모나드, 또는 시이저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배적인 모나드인 것이다. 이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상세한 설명은 HS, Bd. II, 327쪽; *Principes de la Nature et de la Grace*, § 3, PS, Bd. I, 417쪽을 참조할 것.

13) G. W.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Antoine Arnauld*, hrsg. u. übers. von Reinhard Finster, Hamburg, 1997, 133, 143쪽; *Metaphysische Abhandlung*, § 8, PS, Bd. I, 75-77쪽.



### 3. 칸트의 PI 비판

칸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의 PI는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원리가 아니다. 만약에 단지 개념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사물이 있다면, 또는 모든 사물들이 궁극적으로 오직 개념을 통해서만 인식되는 것이라면, PI는 객관적 타당성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란 칸트에 따르면 오직 감성적 직관의 대상이고 이러한 대상에 대해 PI는 적용될 수 없다.<sup>14)</sup>

칸트의 해석을 빌리면 PI란 대상들이 오직 개념을 통해서 비교될 때에, 개념적으로 보아 차이가 없다면 이 대상들을 사실상 동일한 대상인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즉 차이가 있다면 상이한 대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규칙으로서만 타당할 뿐이다. 그래서 이 규칙이 단지 개념을 통해서만 이해되는 그런 대상<sup>15)</sup>에 적용되는 한에서는 그 타당성이 의심될 수 없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 여러 번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내적 규정들 (qualitas et quantitas)을 통해 서술될 때에, 이것이 순수 오성의 대상일 경우에 한에서 이것은 동일한 대상이며 여러 개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단 하나의 사물이다”.<sup>16)</sup>

14) 이러한 생각을 칸트는 PI가 자연의 “법칙”일 수 없다는 말로 표현한다. KdrV, A 272/ B 328.

15) 개념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란 칸트의 표현에 따르자면 가상(可想)적 대상(Intelligibilia) 또는 순수 오성의 대상(Gegenstände der Verstandes)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 순수 오성의 대상에 대해 PI는 타당하다. KdrV, A 249, A 264/ B 320. 물론 이것은 그런 대상이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인식 가능한 한 한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에게서 가상적 대상은 우리 인간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16) KdrV, A 263/ B 319. 다른 곳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갓된 오성의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은 개념(Begriff)과 직관(Anschauung)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대상은 우선 우리의 감성을 통해 직관적으로 주어져야 하며,<sup>17)</sup>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의 인식은 “객관적 실재성(objektive Realität)”을 가질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우리의 감성적 직관에 주어질 두 개의 대상은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견되든 되지 않든 간에, 즉 내적 규정들 — 은 바로 개념들을 통해 표현되는 것인데 — 에 따라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상이한 대상이다. 그리하여 비교되는 대상들이 감성의 대상들일 경우에

“개념들 간의 비교는 전혀 문제가 아니며, 개념들의 견지에서 보아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이 현상이 동시적으로 접하는 장소가 상이하다는 것이 바로 (감성의) 대상 자체가 갖는 수적 상이성의 충분한 근거이다.”<sup>19)</sup>

---

개념에 따르자면 모든 내적 규정들(성질과 분량)의 견지에서 전적으로 동일한 두 사물을 별개의 두 사물로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는 언제나 오직 한 사물이 두 번 생각된 것이다(수적으로 하나). 이것이 곧 라이프니츠의 구별 불가능한 것의 동일성 명제(Leibnizens Satz des Nischtzuunterscheidenden)이다”. I. Kant, *Fortschritte der Metaphysik*, WS, Bd. III, 614쪽. 흥미로운 사실은 칸트가 PI를 늘 가언 명제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라이프니츠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물은 상이하고 구별이 가능하므로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가정된 두 사물은 실상 하나의 사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언 명제로 표현된 PI는 가언 명제로 변환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라이프니츠 자신은 각주 2의 인용문 등에서 보듯이 PI를 가언 명제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17) 우리의 직관에 주어질 수 있는 대상을 일컬어 칸트는 감성의 대상(“Gegenstände der Sinnlichkeit”/“Gegenstände der Sinne”)이라고 칭하며 이는 현상(Erscheinung)이라고도 불린다. A 263-4/ B 319-20 참조.

18) KdrV, A 279/ B 335.

19) KdrV, A 263/ B 319. 칸트는 두 개의 물방울을 보기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들(두 물방울)이 감성의 대상들이므로, [...] 다수성과 수적

그러니까 감성의 대상들은, 예컨대 두 개의 물방울은 이미 상이한 공간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적으로 상이한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개념적 차이와 무관하다. 만약 이 물방울들이 개념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면, 칸트에 의거하여 볼 때 이들은 전적으로 동일한, 그러나 수적으로는 상이한 물방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PI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동일한 사물들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사물은 개념적으로 상이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어떤 두 사물도 개념적으로 보아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PI가 바로 이 주장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칸트와 라이프니츠의 차이가 더욱 더 분명히 드러난다.

공간 일(一) 입방 피트의 개념은 — 나는 이것을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 그 자체로 보아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일 입방피트 둘은 공간에서 이들이 점하는 장소들을 통해 구분된다(수적으로 둘); 이러한 장소들이란 직관의 조건들로서 이 직관 속에서 이러한 개념의 대상이 주어지며 이것들은 개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성에 속한다.<sup>20)</sup>

---

상이성이 이미 외적 현상들의 조건으로서의 공간 자체를 통해서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공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어떤 다른 부분과 전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더라도, 이 다른 부분의 외부에 있으며,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상이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의 부분공간은 이 후자의 공간과 합쳐져 보다 큰 공간을 이루는 것이다.” KdrV, A 264/ B 320.

- 20) KdrV, A 282/B 338. 다른 곳에서도 칸트는 PI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라이프니츠를 비판하고 있다. “구별 불가능한 것의 동일성 원리(Der Grundsatz des Nichtzuunterscheidenden)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모든 내적 규정들(성질과 분량)의 견지에서 전적으로 동일한 사물들 A와 B에 대해 두 사물들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개념을 만든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이들을 하나의 동일한 사물(수적으로 하나인 것)로 간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들을 공간에서의 장소들을 통해서 — 전적으로 동일한 부

여기에서 칸트는 어떤 대상들은, 예컨대 기하학적 도형으로서 3차원 공간을 차지하는 일 입방피트 들은 개념적으로 보아 전혀 차이가 없으나 수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대상들임을 말함으로써 현상에 적용되는 원리로서의 PI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칸트가 보기에 왜 라이프니츠는 PI가 우리의 감성에 주어지는 현상적 대상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는 —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모나드들 외에 현상적 사물에도 적용된다는 — 오류를 범한 것일까? 이에 대한 칸트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칸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현상과 물 자체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고 현상을 마치 물 자체인 양 취급했다는 것이다.<sup>21)</sup> 그리하여 라이프니츠는 모든 사물을 오직 개념을 통해서만 비교했을 뿐<sup>22)</sup> 감성적 조건에 의거하여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가 보기에 왜 라이프니츠는 사물들을 오로지 개념들을 통해서만 비교하고 감성적 조건을 도외시했을까? 그것은 칸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가 감성(Sinnlichkeit)을 오성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인식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3)</sup>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감성의 표상을 혼연한 또는 불명료한 인식으로, 오성의 표상을 명료한 인식으로 보았을 뿐, 오성과 감성이 독립적인 두 개의 인식원천이며 이 두 능력들의 표상들이 결합함으

---

분공간들이 외적으로 나란히 접하고 있다고 표상될 수 있기 때문에 —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 그는 [라이프니츠는] 인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개념들을 통한 구별만을 인정했고 개념들과는 종별적으로 구분되는 표상의 유형 즉 직관(Anschauung)을 [...]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I. Kant, *Fortschritte der Metaphysik*, WS, Bd. III, 616쪽.

- 21) “라이프니츠는 현상을 물 자체로, 그리하여 가상적 대상(intelligibilia)으로, 즉 순수 오성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KdrV, A 264/ B 320; “현상이란 그에게는 물 자체의 표상이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오성을 통한 인식과는 [...] 구분될 지라도 말이다.” KdrV, A 270/ B 326.
- 22) “그는 [라이프니츠는] 모든 사물들을 오직 개념들을 통해서만 비교하였다”. KdrV, A 270/ B 326.
- 23) “감성이란 그에게는 단지 혼연한 표상의 방식(Vorstellungsart)이었을 뿐이었고, 표상들의 어떤 특수한 원천이 아니었다.” KdrV, A 270/ B 326.

로써만 대상에 대한 타당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sup>24)</sup>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의 대상은 오직 현상일 뿐인데, 라이프니츠는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물 자체인 것으로, 또 현상은 혼연하게 표상된 물 자체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물 자체란 현상의 근저에 놓인 사물로서, 현상은 결국 물 자체로 환원된다. 그리고 이 물 자체는 라이프니츠에게서는 모나드들에 다름 아니다. 그리하여 칸트는 “모든 사물들은” 라이프니츠에게는 “원래 모나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sup>25)</sup> 그리고 이러한 환원은 칸트에 따르면 단지 현상의 “지성화”일 뿐이다.<sup>26)</sup> 만약 라이프니츠가 감성을 오성과 마찬가지로의 권리를 가진 독립적 인식원천으로 간주했다면, 그리하여 감성의 대상으로서의 현상적 사물과 순수 오성의 대상으로서의 물 자체를 뚜렷이 구분했다면, 물 자체(라이프니츠에게서는 모나드)에나 적용될 PI를 현상에까지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칸트가 내리고 있는 판단이다.<sup>27)</sup>

24) 그리하여 칸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오성과 감성에서 표상들을 산출하는 두 개의 전적으로 상이한 원천을 찾는 대신에 — 이 표상들이 결합됨으로써만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사물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터인데 — [...] 이 원천들 중의 하나만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KdrV, A 271/ B 327.

25) KdrV, A 283/ B 339f.

26) “라이프니츠는 현상을 지성화했다”. KdrV, A 271/ B 327.

27) 적어도 이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인 「반성개념들의 모호성에 관하여」장에서 나타나는 칸트의 입장은 라이프니츠 식으로 이해된 물 자체가 모순 없이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식의 대상이 아닌 단지 사유(Denken)의 대상으로서의 물 자체에 PI가 적용될 수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다.

#### 4. 칸트의 비판이 지니는 타당성과 문제점

이상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PI에 대한 칸트의 비판과 그 근거를 살펴보았다. 칸트의 비판은 우리 인간이 지니는 인식적 조건을 뛰어넘어 모나드론과 완전개념의 이론을 설파한, 그리고 이들을 전제로 하여 PI의 타당성을 주장한 형이상학자 라이프니츠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비판의 시도는 인간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을 규명하고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어떤 인식적 주장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비판철학적 입장이 타당한 한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한 칸트의 PI 비판이 아무리 설득력을 지닌다 해도 이 비판의 내용 전체가 어떤 결함도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의 비판은 간과되어서는 안될 몇가지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현상적 사물로서의 두 대상에 대해, 예컨대 두 물방울에 대해 우리는 모든 내적인 상이성(성질과 분량에 따르는)을 도외시키고서도 공간적 차이만으로도 수적 상이성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다. 즉, 이 경우에 공간적인 차이는 수적 상이성의 확정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PI에 의거하여 모든 사물들이 내적 규정들에 따라, 즉 개념적으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sup>28)</sup>

물론 공간 중의 두 사물이 서로 수적으로 상이하다는(두 개라는) 칸트의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이프니츠 자신도 공간 중의 두 물방울이 서로 수적으로 상이한 두 사물임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칸트가 PI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이를 부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칸트는 라이프니츠가 공간 중에 있는, 개념적으로 구별이

28) 이 논문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검토하고 그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 까닭에, PI가 타당함을 라이프니츠가 어떻게 근거짓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피지 않았다.

불가능한 두 개의 사물을 가리켜 실제로는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sup>29)</sup> 실상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것은 칸트가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개념적으로 (성질과 분량에 따라) 서로 구별되지 않는 모든 사물은 전적으로 한가지(수적으로 하나)”라는<sup>30)</sup> 것이 아니라, 사물들은 수적으로 상이한 것 이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sup>31)</sup> 즉, 사물들 간에 공간적 차이에 따르는 수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개념적 차이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을 라이프니츠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칸트가 PI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부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제공하는 한에서, 그의 비판 또한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의 문제와 부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라이프니츠의 완전개념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PI의 타당성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과 완전개념론을 전제한다. 그리하여 라이프니츠가 모든 사물들

---

29)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라이프니츠의 주장에 대한 칸트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물론 이 인용문은 『순수이성비판』에서 발췌한 것은 아니지만 『순수이성비판』에서 전개되는 칸트의 라이프니츠 비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구별 불가능한 것의 동일성 원리(Der Grundsatz des Nichtzuunterscheidenden)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모든 내적 규정들(성질과 분량)의 견지에서 전적으로 동일한 사물들 A와 B에 대해 두 사물들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개념(einen Begriff)을 만든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이들을 하나의 동일한 사물(수적으로 하나인 것)로 간주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들을 공간에서의 장소들을 통해서 — 전적으로 동일한 부분공간들이 외적으로 나란히 접하고 있다고 표상될 수 있기 때문에 —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 그는 [라이프니츠는] 인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개념들을 통한 구별만을 인정했고 개념들과는 종별적으로 구분되는 표상의 유형 즉 직관(Anschauung)을 [...]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I. Kant, *Fortschritte der Metaphysik*, WS, Bd. III, 616쪽.

30) KdrV, A 281/ B 337.

31) G. W. Leibniz, *Nouveaux Essais*, PS, Bd. III/1, XXXIII쪽.

은 내적 규정에 따라, 개념적으로 상이하다고 말할 때 — 이것이 곧 PI의 내용인데 — 그는 이 완전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칸트가 PI를 거론하면서 “개념적인 차이” 운운할 때, 자신의 개념론에 바탕하여 논지를 펴고 있다는 점이다. 라이프니츠의 완전개념은 개별적 개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모나드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모든 개개의 모나드에 각기 하나씩의 완전개념이 대응한다. 그러나 칸트가 생각하는 개념이란 일반 개념으로서 여러 사물들을 그 아래에 포섭하는 것이다.<sup>32)</sup> 완전개념이 우리 인간이 소유한 개념이 아니라 신적 개념이며<sup>33)</sup>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PI의 타당성을 정초지우려 한 라이프니츠의 시도는 충분히 비판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비판이 완전개념을 거론하지 않고 일반 개념을 전제로 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판 속에서 PI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방해받고 있다. 예컨대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없는 두 개의 사물에 대해 칸트가 말할 때 — 이런 구별 불가능성을 PI는 인정하지 않는데 — 칸트는 물론 일반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어떤 두 사물도 동일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완전개념에 따르는 구별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개념을 고려하지 않는 칸트의 비판은 불충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개념이 오직 일반 개념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도 말이다.<sup>34)</sup>

32) 칸트는 개별적인 표상인 직관과는 달리 개념은 “일반적 표상(allgemeine Vorstellung)”이며 따라서 “다수에 적용된다(für viele gilt)”고 말한다. KdrV, A 68/ B 93, A 320/ B 377; *Fortschritte der Metaphysik*, WS, Bd. III, 666쪽; I. Kant, *Immanuel Kants Logik*, hrsg. von G. B. Jäsche, Königsberg, 1800, WS, Bd. III, 521쪽.

33) 라이프니츠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각주 13 참조.

34) 만약 우리가 두 사물의 개념적 차이를 논할 때 단지 유한한 인간의 오성에 고유한 일반개념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칸트의 입장에서 서서 라이프니츠의 견해를 쉽사리 일축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염두에 두고 있는 완전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라이프니츠의 PI를 고찰한다면, 우선 PI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이에 대한 비판도 불충분할



셋째, 라이프니츠의 PI를 비판하면서 칸트가 들고 있는 몇 가지 예들 중의 하나가 일 입방 피트의 기하학적 공간인데,<sup>35)</sup> 이 예에서 칸트는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 일 입방 피트의 도형(공간)이 여러 개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라이프니츠를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는 필자의 견해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 자신도 두 개의 동일한 일 입방 피트의 기하학적 도형이 가능함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하학적 도형으로서의 이러한 대상들은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라기 보다는 추상적 대상들이다. 우리가 도형들을 단지 도형 그 자체로서만 고찰하고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질료를 도외시한다면 두 개의 동일한 대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라이프니츠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라이프니츠는 기하학에서 특정한 두 개의 삼각형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렇다 해도 “두 개의 질료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삼각형은 결코 발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sup>36)</sup> 다시 말하면 라이프니츠의 PI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기하학적 도형과 같은 추상적 대상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예를 통해서 PI가 반박될 수 없다.

## 5.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PI가 갖는 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칸

---

수박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까닭에 앞에서 언급한(각주 1) 박진과 백승환의 논문들이 첫째, 칸트와 라이프니츠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둘째, 어떤 의미에서 칸트의 비판이 정당한지를 명료히 서술하고 있지만, 완전개념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필자는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

35) KdrV, A 282/ B 338.

36) G.W. Leibniz, *Opusculs et Fragments inédits de Leibniz: Extraits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Hanovre*, hrsg. von L. Couturat, Paris 1903 (Nachdruck, Hildesheim, 1966), 520쪽.

트의 비판과 그 비판의 근거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 비판이 안고 있는 몇가지의 문제점들도 제시하였다. 라이프니츠가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칸트의 비판을 — 그리고 이 비판의 연장선 상에서 PI의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 우리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인간의 인식 대상이 아닌 모나드들의 상이성과 현상적 사물들의 상이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후자를 전자로 환원시켜 PI가 후자에도 역시 적용되는 원리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칸트의 비판도 칸트의 입장에서 보아 충분한 근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칸트의 비판 역시 문제점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그런 한에서 우리는 칸트의 비판 역시 재음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PI에 대한 칸트의 비판이 아무리 설득력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PI가 갖는 철학적 의미의 전적인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선 직접적으로 칸트 자신이 PI에 대한 자신의 해석 속에서 그것이 갖는 논리적 규칙으로서의 의미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칸트를 뒤이어 헤겔이 그의 『논리학』 *Wissenschaft der Logik*에서 다시금 PI를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sup>37)</sup>

## 참고문헌

### 〈1차문헌〉

Leibniz, G. W.,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ottfried Wilhelm Leibniz*

37) 예를 들면 『논리학』의 「본질론」에 나오는 〈차이〉 장에서 헤겔은 라이프니츠의 PI를 “상이성 명제(Satz der Verschiedenheit)”로 명명하고 그것의 의미를 새로이 분석한다.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Bd. 6 der von E. Moldenhauer und K. M. Michel besorgten Theorie-Werkausgabe, Frankfurt a. M., 1969ff., 52-55쪽 참조.

- (=GP), 7 Bände, hrsg. von C. J. Gerhardt, Berlin 1875-1890 (Nachdruck, Hildesheim, 1960ff.).
- \_\_\_\_\_, *Philosophische Schriften* (= PS), hrsg. u. übers. von W. von Engelhardt und H. H. Holz, Darmstadt, 1985.
- \_\_\_\_\_, *Hauptschriften zur Grundlegung der Philosophie* (= HS), übers. u. hrsg. von E. Cassirer, Hamburg, 1966.
- \_\_\_\_\_, *Opusculs et Fragments inédits de Leibniz: Extraits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èque royale de Hanovre* (= C), hrsg. von L. Couturat, Paris 1903 (Nachdruck, Hildesheim, 1966).
- \_\_\_\_\_, *Der Briefwechsel mit Antoine Arnauld*. Französisch-deutsch, hrsg. u. übers. von Reinhard Finster, Hamburg, 1997.
- Kant, I., *Werke in sechs Bänden* (= WS), hrsg. von W. Weischedel, Darmstadt, 1956-64 (Nachdruck, 1983).
-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 KdrV), hrsg. von R. Schmidt, Bd. 37a der Philos. Bibliothek, Hamburg, 1956.
- Hegel, G. W. F., *Werke in 20 Bänden. Theorie- Werkausgabe*, hrsg. von E. Moldenhauer und K. M. Michel, Frankfurt a. M., 1969ff.
- \_\_\_\_\_, *Wissenschaft der Logik II* (= WdL II), TWA, Bd. 6.

#### 〈2차문헌〉

- 박 진(1998), 「칸트의 반성원리들에 관하여(I)」, 『철학』 57집, 167-195.
- \_\_\_\_\_(2000), 「칸트의 라이프니츠 비판 — 칸트의 반성원리들에 관하여(II) —」, 『철학』 65집, 115-138.
- 백 승환(2005),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한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리 비판」, 『철학논구』 33집, 2005, 131-147.
- 윤 선구(1998), 「현상세계의 형이상학적 근거 — 라이프니츠의 현상계 이론 —」, 『철학』 57집, 129-165.
- Frankel, L.(1981), “Leibniz’ Principle of Identity of Indiscernibles”, *Studia*

*Leibnitiana* 13, 192-211.

Kauppi, R.(1966), "Einige Bemerkungen zum Principium identitatis indiscernibilium bei Leibniz",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XX, 497-506.

Lorenz, K.(1969), "Die Begründung des principium identitatis indiscernibilium", *Studia Leibnitiana Supplementa* 3, 149-159.

Malter, R.(1982), "Reflexionsbegriffe. Gedanken zu einer schwierigen Begriffsgattung und zu einem unausgeführten Lehrstück d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Philosophia Naturalis* 19, 125-150.

Mates, B.(1986), *The Philosophy of Leibniz*, New York/ Oxford,.

Parkinson, G. H. R.(1965), *Logic and Reality in Leibniz's Metaphysics*, Oxford,.

Reuter, P.(1989), *Kants Theorie der Reflexionsbegriffe*, Würzburg,.

Willaschek, M.(1998), "Phänomena/ Noumena und die Amphibolie der Reflexionsbegriffe", in: G. Mohr und M. Willaschek (Hrsg.),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Berlin, 325-350.

**ABSTRACT**

---

Kants Kritik an Leibniz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rundsatzes  
des Nichtzuunterscheidenden —

Park, Bai-Hyoung

Kant setzt sich mit dem philosophischen System von Leibniz im allgemeinen im Kapitel “Von der Amphibolie der Reflexionsbegriffe” d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auseinander. In diesem Amphibolienkapitel interpretiert und kritisiert Kant den Leibnizschen Grundsatz des Nichtzuunterscheidenden. Dieser Grundsatz, der oft unter dem lateinischen Namen *principium identitatis indiscernibilium* angeführt wird, ist ein philosophisches Prinzip, das in Leibniz’ Logik und Metaphysik eine zentrale Stellung einnimmt. Dieser Grundsatz besagt, dass alle Dinge verschieden sind und dass jedes Ding von einem anderen aufgrund einer inneren Bestimmung unterschieden ist. Er gilt nach Leibniz von allen Dingen wirklich und absolut. Kant unterzieht den Grundsatz des Nichtzuunterscheidenden einer strengen Kritik. Seiner Interpretation nach ist dieser Grundsatz kein objektiv gültiger Satz. Dieser gelte nicht für Gegenstände der Sinne, die allein für uns Erfahrungsgegenstände sein können. Nach Kants Ansicht konnte Leibniz die Sinnlichkeit nicht als eine ursprüngliche, von dem Verstand ganz verschiedene Erkenntnisquelle anerkennen und die Eigentümlichkeiten der Vorstellung der Sinnlichkeit, d. i. der Anschauung nicht

berücksichtigen. Daher habe Leibniz Gegenstände der Sinnlichkeit und Gegenstände des reinen Verstandes miteinander verwechselt. Und diese Verwechslung hatte nach Kant zur Folge, dass Leibniz irrtümlicherweise seinen Grundsatz auch als für die Erscheinungen gültig, d.h. als Naturprinzip behauptete.

Kants Kritik und seine Argumente, so sehr sie auch als begründet erscheinen mögen, enthalten ihrerseits gewisse Schwierigkeiten.

Erstens, Kant gibt nicht genau wieder, was Leibniz mit seinem Grundsatz behauptet. Er schreibt, als ob Leibniz behauptet hätte, zwei begrifflich ununterscheidbare Dinge im Raum seien ein und dasselbe Ding. Aber auch Leibniz erkennt an, sie sind zwei unterschiedene Dinge. Er meint nur, dass sie nicht bloß numerisch verschieden, sondern aufgrund innerer Bestimmungen voneinander verschieden sind.

Zweitens, die Gültigkeit des Grundsatzes, wie Leibniz behauptet, ist ohne Voraussetzung der Monadenlehre und seiner Lehre des vollkommenen Begriffs nicht genau erklärbar. Aber Kant berücksichtigt die Lehre des vollkommenen Begriffs nicht, sondern betrachtet den Grundsatz nach seiner Lehre des Begriffs. In dieser Hinsicht ist seine Kritik nicht völlig zu rechtfertigen.

Drittens gebraucht Kant ein paar Beispiele, um den Grundsatz wiederzulegen. Eins davon ist ein Beispiel einer geometrischen Figur. Zwei Kubikfüße im Raume seien begrifflich ununterscheidbar, aber zwei verschiedene Dinge; sie seien bloß durch ihre Örter unterschieden. Allerdings würde Leibniz auch nicht leugnen, dass zwei Kubikfüße bloß als geometrische Gegenstände betrachtet völlig gleich sein können. Sie sind nach Leibniz abstrakte Dinge und keine wirklichen Dinge, die konkret sind. Leibniz räumt ein, dass zwei geometrische Figuren vollkommene gleich sein können, aber kein wirkliches Ding einem anderen völlig gleich sein kann. Deswegen ist durch dieses Beispiel der Leibnizsche Grundsatz nicht widerlegbar.

Wie wir bisher gesehen haben, hinterlässt Kants Kritik an dem Leibnizschen Grundsatz einige Probleme. Solange diese keine befriedigende Lösung finden, bleibt Kants Kritik an diesem Grundsatz nicht zureichend, obwohl sie zum grossen Teil treffend erscheint.